

교회 목표

신앙관 예배
전공요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화
아름 사람

주간충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사랑함이라
(골 3:3)

대한예수교 추천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추천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도 제1차 정기기혼례에 대하여(3)

이번 주수요일(12일)~금요일(14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

2003년도 제1차 정기기혼례가 이번 주 수요일(12일)부터 금요일(14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제3교과 봉사를 비롯, 전(全)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미 출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한대로 이번 정기기혼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기혼례를 통해서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입장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일꾼의 바른 정신과 태도로 무장하며, 그리스도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중언일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기기혼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미리 묵상하는 셋째 날(2월 14일) 메시지 - “젓긴 주님”

2003년도 정기기혼례 셋째 날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본문에 따라 “젓긴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 바리새인들의 질투와 증오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갔지만(요 19:6~7),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마적인 반역과 배반을 구원의 제사로 바꾸셨다. 그러므로 그의 젓긴심은 세 가지 측면, 즉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자신에게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의 젓긴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증거(결실)임(골 1:14~15, 히 1:2~3, 롬 5:8),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큰 증거이며(롬 3:25, 롬 3:26, 요일 1:9, 롬 1:17, 고후 5:21), 하나님의 가장 큰 부요임을 의미한다(골 5:9, 빌전 2:9). 또한 그리스도의 젓긴심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대하여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의 젓긴심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가장 고귀한 표현임(빌 2:8),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가장 완전함이며(히 5:8~9),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사랑의 표지임을 뜻한다(엡 2:5, 갈 2:20).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의 젓긴심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정결함의 의미를 부여함(요사 53:6, 히 9:28, 롬 5:18, 히 9:22), 현실의 성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갈 3:1, 고전 2:2, 빌전 2:7, 고후 2:15~16, 고전 1:18).

말고도요한 그 말씀 / 2월 7일 금요일

십자가의 승리(The Triumph of the Crucified)

1부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임하신 분이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II 성육신하심은 역사적인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천상에서 회개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드린 말씀은 그가 우리에게 오시려는 뜻이 담겨있지 않지 않더라(히 10:5~7, 시 40:6~8).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전개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체를 버티고(요 8:58) 이 세상의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신 것이다(마 18:15).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성육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골 2:6~8),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요 5:2, 요 1:14). 진실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며, 말씀이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말씀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사람들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주었다. 하지만 죄악의 죄사슬에 얽매어 있는 인간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었다(요 1:1~5).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아버지과 동생자의 영성이요 은혜와 진리의 출현이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보좌를 떠나서 사공간에 존재하는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함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자기를 비어 인인이 되신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포기하

신 절대적인 회생을 의미한다. 그가 땅 아래로 내려가신 것(엡 4:9~10),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甘히하게 되심은 그의 고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고후 8:9).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모든 일들, 구약 역사가 나타나 모든 일들은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과 예언적인 현상이었으며, 그가 오신 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장차 그의 이름 안에서 완결하게 성취될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완성이요(골 1:26~27).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에 대한 제사가 역사를 통하여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동일한 원칙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기초이신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이다(골 2:2~3). 이 세상에서 그의 사역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놓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역사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배틀레임의 구구는 끝났다 언덕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것의 전환점(요사 53:6, 고후 5:21). 모든 사랑의 극치의 전환점이 되었고(요사 53:6, 고후 5:21). 구원이 시작되는 전환점이었다(요 3:36). 모든 생애와 찬양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골 3:13). 역사 안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인 진실로 그에게 내재된 신성과 인성의 하나님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요 이적 중의 이적으로서,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고백만이 필요한 뿐이다(요 1:17~18, 요 3:34, 5:5~51).

자·난·수·요·예·배·배·사·지

귀한 손님 (엡 3:17)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든 족속에게 이들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에 타율당(타율 3:5). 그래서 그는 바울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셨는데 3:16~19. 진실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소망을 위하여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부름으로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요와 성취라는 우상에 빠져들게 하는 사탄자들의 족 목자들을 경고하며 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머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길 바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잘라두고 필요한 기도제목이다 왜하면 그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누구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원치 않고 줄지 않는 손님

그리스도인들은 악마와 사탄을 마음에 결코 받아들이어서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들을 결코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쉽게 신자들의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사로잡힌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언제나 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몸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자들을 가지고 있으며(로 10:1), 속이는 자의 아버지로서 온 천하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능을 소유하고(마 28:18) 대제사장이다. 이가 그 본래대로 그들은 언제나 굴복한 사탄처럼 심장을 찾아 다니는 가장 악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5:8, 9:20로 불행한 손님이라 악마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 진실로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까이하며 사탄의 권력에 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47.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모셔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세상이요 세속자이며 세상에 근거를 두는 자들이다. 스스로 세상과 벗이 있는 것은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일이다(골 4:4). 왜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세속에 몰려들어서 안도는 자들이요(히 12:1, 마 2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마 27)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마 27) 때문이다. 세상과 그 거처만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모셔들여서는 안되는 안되는 것 아니 오려나 내마음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으로 이적한 자들이다. 그것은 육체의 속성이 성령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정령화 만듦으로써(마 23:23) 오직 진실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7번까지 할 수 없으며(마 28) 육체 속성은 성령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양면의 미완성에 빠져들고(마 23:23) 그러므로 육체의 속성으로 이적한 자들을 깨뜨리는 일 그리고 그 주인의 자비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일이다(마 23:23)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다.

- 가장 귀한 손님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7번까지하는 이들(마 23:23)만, 만의 자들을 위한 구원이(마 23:23) 그는 우리를 향해서 천구와 지구(마 23:23)로 오실 때, 오 날마다 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마 2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양면성에 대해서(마 23:23) 마귀의 속성과(마 23:23) 구원을 구함만 유대(마 23:23) 6:3.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마 23:23) 바꾸고 홀로 하나님을 주재(마 23:23) 우리 그리스도를 부양하는 자들(마 23:23) 그러나 자들처럼 그리스도 마음 들어오는 것(마 23:23) 자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7번까지(마 23:23) 마음을 감동하여 기도하며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든 자들은 존재(마 23:23) 11:4. 사도 바울이 도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열어놓는 이들의 마음에 머무르실 것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뿐이요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IN THE MIDDLE OF DESPAIR

(2 Corinthians 1:4-9)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For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are ours in abundance, so also our comfort is abundant through Christ..."

Three beautiful little girls, ages 5, 7, and 10, are sitting together with tears in their eyes watching the lid on their mother's casket close. Their father deserted them several years ago, and they have no close relatives. While the pastor is waiting for the orphanage people to pick them up, the oldest girl quietly asks, "Pastor, why did God take my mom away?" Earlier that same morning, two parents sat in a waiting room of a hospital with tears in their eyes. Their only child, a son age 13, was undergoing major surgery. The doctor finally came through the doors and approached them with a bowed head, saying, "I'm sorry, I tried my best, but he died in the middle of the operation". The parents cried out, "Why God?" The newspaper that day reported terrorists torturing, then killing a missionary family and burning the village children in a small church in South America. People all over the city wondered, "How come God lets these things happen?"

Varying degrees of tribulation fill our world. So many terrible and tragic things happen every moment of every day. The anguish and sadness of poverty, sickness, death, dying, and separation are part of the Christian life here on this earth. Paul says, "For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are ours in abundance, so also our comfort is abundant through Christ" (v. 5). The reality of suffering, especially that of the helpless or innocent, is difficult to comprehend for anyone who believes in an omnipotent and benevolent God. There are no complete answers or explanations for why God allows such suffering to happen. It is a mystery. Therefore, how are we to reason through this kind of suffering? In the middle of despair, what should we do? Let's think about some of the important things we can do.

We need to recognize our frustration. Our life on this earth will be trying. We have to accept that fact and not ignore it. My beloved Choong Hyun members, I'm telling you that you don't belong to this earth, you're heavenly children, but you will experience suffering on this earth. Be aware of it! Don't close your eyes to this truth, and don't

give up. Clearly this suffering has to exist in our lives. We cannot explain it from our knowledge of experience, or from our understanding of faith. As such, it's frustrating but not alarming. The Bible tells u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 4:6-7). When something bad happens, we can pray. We have the opportunity to fellowship with God in our suffering. When terrible things surround us on all sides, we mustn't give up. Paul said, "For we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ethren, of our affliction which came to us in Asia, that we were burdened excessively, beyond our strength;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 indeed, we had the sentence of death within ourselves so that we would not trust in ourselves, but in God who raises the dead" (vv. 8&9). Paul's experience here illuminates Christian life experiences. The devil has control on this earth, but the Bible still gives us wonderful encouragement. Suffering is frustrating, but God provides comfort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will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v. 4).

We need to realize our limitations. All our efforts and talents still face failure. Simon couldn't find any fish in the sea, but with Jesus' instructions he found plenty (Lk. 5:5). Jesus is omniscient. Our understanding is limited because we are human. We cannot understand all the ways of God. It's frustrating. We know God allows suffering, but we cannot always understand why right now. The ways of God are many times beyond our minds' capacity, "because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en,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en" (1 Cor. 1:25). The safest way to justify the ways of God, who is always in the right and is glorious and worthy of praise despite contrary appearances, is to leave God's permission of suffering as a mystery, and to reason from the good achieved in redemption. Faith, reasoning as such, thinks it certain that the final state of things will be better than

anything God could have achieved by taking a different course at any stage. We must simply recognize our frustration for now and return to the Word of God.

We need to rely on God's revelation. The Bible reveals the secrets of God. First Peter tells us, "For all flesh is like grass, and all its glory like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 falls off,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1:24-25). Many times Christians are envious of the arrogant because of their prosperity and ease of life. Their lack of suffering confuses us. This problem bothered David until he "came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he" perceived their end" (Ps. 73:4&17). We must stand in this world with a sense of human frailty, but knowing that God is always with us, "for it is God who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Phil. 3:13). God has the big plan and the best plans for you. When bad things happen, we have an escape. The way out is not necessarily relief, but power to be able to bear it.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1 Cor. 10:13). If you rely on the Word of God, you will find the secret. So, in times of suffering don't turn to family and friends for answers, turn to Jesus. Humans will confuse you because they're not perfect, but Jesus will give you the answers you need.

We need to remember our destination. Romans 8:18 tells us,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Amen. Do you believe it? Jesus died for you. He resurrected, and is now preparing our eternal homes.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my friends (see Phil. 3:20). Jesus told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Jn. 11:25-26). Do you believe this? God loves us! He gave His only Son for the salvation of our souls. Jesus came to this earth and didn't taken any glory or wealth. His desire was to save our souls. That's why he suffered and through His suffering we receive glory. Remember that our earthly homes are temporary. Heaven is our eternal home.

On this earth, when you accept Jesus, the devils and his demons attack you with full force. You have to recognize that and not trust in yourself, but believe in the Word of God. You need to remember the final destination. In the middle of despair, call on Jesus and God will comfort you abundantly. 🙏

절망의 한복판에서 (고후 1:4~9)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데도..."



김성만 목사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고난

5살과 7살 그리고 10살이 된 세 명의 귀여운 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엄마의 관 뚜껑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 소녀들의 아빠는 여려해 전에 그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소녀들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들을 고아원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언니가 목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의 엄마를 멀리 데려가신 거죠?" 같은 날 이른 아침, 어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병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없는 13살 짜리 아이가 큰 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의사가 병실 문을 들어왔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는 수술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죠?" 또 그날 신문에는 테러리스트들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교회의 선교사 가족을 죽이고, 마을 아이들을 붙여 잡아넣은 만행이 실렸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오는 고난

온갖 종류의 시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끔찍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납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곤, 질병, 죽음, 이별과 같은 것들로 인한 고난과 슬픔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데도"(5절). 특히,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도움도 받을 없는 고난이 닥치는 것은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하여 완전하게 답변하고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찾아든 절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지만, 그 좌절감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며 절대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천혼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

에 대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얻는 지식이나 믿음을 통한 이해로는 이러한 이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가 절망스럽기는 하지만 고난에 빠지는 것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요하며 무엇에든지 절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청결한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8~9). 바울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경험을 조망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조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4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재능은 여전히 실재에 직면합니다. 시몬은 밥도 고기를 한 마라도 잡지 못했지요. 예수의 지시에 따르므로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눅 5:5).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스러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나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지혜의 역량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에게 드러내 없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에게 강하게 되"(고전 1:2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인간의 이해나 기도와 반대로 나타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의롭고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하며, 그 분의 방법에 순종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승인하신다는 것에 대해 반만하지 말고 그 속속절 안에서 신을 이루어 성취하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 따른 믿음은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당장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좌절을 단순하

고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들의 인생의 변형과 안락함으로 인하여 거드름을 피우거나, 다른 이들의 변형과 안락함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했도 이러한 문제로 괴로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너희 결구를 내가 깨달았나이다"(시 73:17).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견뎌야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전 10:13).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비히 마시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함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셨나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보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빌 3:20 참조).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요 11:25~26).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이나 부귀를 얻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받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함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 사단과 그의 부하인 귀신은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도박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이집트

대학부 단기선교단(2월 10일~20일)
탄타, 마시마투라, 자위앗사마,
알만슈라 지역

-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아랍어와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 지난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현지인 가족을 방문하여 복음으로 교제할 때, 서로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소서.

카자흐스탄

대학부 단기선교단(2월 10일~20일)
알타이, 타라즈, 칠킨트 외곽 지역

- 언어를 홀신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단원들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러시아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러시아 교인들과 모슬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활짝 열리게 하소서.
- 이동할 때나 잔도할 때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이 있다. 요즘은 참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신자가 더러 있다라고 제자는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것 같다.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인간이 갈채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제자인 무슨 뜻인가?

첫째,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내게 배우라"(마 11:29)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믿음 시간과 빠른 마음을 들어 예수님께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둘째,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다

훈련을 받고, 영감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성경, 기도, 기도, 선교, 헌신, 봉사 등의 훈련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 오라"라고 하셨다. 장미꽃 화원요인만 인도하신다면 따라간다는 것이 어려울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훈련한 고지로 인도하시며, 십자가의 영예를 메고 따르라고 하셨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로 인도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미렛노치처럼 불무불속 속에 던진 해도 흔들림 없는 결의로써 따를 수 있는가? 따라감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물으셨다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 하느냐? 이 사랑이 제자 되게 한다.

둘째는 절대적인 복종이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만이 온전한 제자 길을 걸을 수 있다.

셋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복이다

모든 소유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내 것이란 없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고, 성실하게 위탁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값없이 헌신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주님이 이미 치러 놓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안드레와 베드로는 전부를 버리고 주를 따랐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죽도록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 정직하고 직선적인 베드로가 어느 날 주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은 보상이 무엇인가 물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어느 날 반드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최후에 대해서 반드시 "너라 배"를 보상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땅 끝까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를 믿는 소자에게 배분 받은 성 한 그릇의 찬절도 있지 않고 고상하는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피 묻은 발자취를 잊으시겠는가? 예수의 온전과 정성을 헛되이 하 시겠는가? 우리 함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자.

(선교원회원 지도 이종철목사)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④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천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역은 교구 구성원이 적어 7명에서 8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6월이나 7월 정도에 나갈 예정으로 여러 나라와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지역장으로서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역에는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건강이 염려되며, 한 팀을 이루기에는 너무 적은 지역마다 팀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팀장이 되었을 때보다 지도나 통솔이 쉽지 않겠지요. 저보다 나이와 경험이 많으신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로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앞서지 말며,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명령이니 죽도록 충성하며 사역할 기도를 합니다.

4.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 구절과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오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와 같이 우리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즐거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5. 단기 선교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름:이승욱
교구:1교구
지역명:국기4.5

(연정식 기자)

토기장이와 토기

성경과 인본주의

우리는 피조물이며 창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도이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피조물이 아들이 되며 창조인 성도가 되는 이 논리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가? 아무리 슬기로우며 자비로운 자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태어남의 완전을 믿지 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골 10:2). 가장 큰 장애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논리를 깨닫는 자만이 전례 없는 아들이기에 깨달을 수도 있고, 한 참 자신을 축복할 만한 칭찬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을 가난한 자의 열악한 노릇에 깨달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수년이 흘러야 깨닫는 경우도 있고, 복음을 듣지마지 바로 깨닫는 경우도 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규칙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아들이야 한다(골 4:3).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주된 세상을 꿈꾼다. 인간이 중심 되는 세상 이것이 인본주의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이라는 원리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신들의 낙원을 꿈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에 말미암아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항상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갈망을 마치 땅 위의 천국처럼,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과단과 욕심, 불순종, 우상숭배, 탐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주권으로 알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자이다. 필자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저지 않은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들은 인간이 피조물인 것과 창조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를테면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만약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을 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않은 본으로 묘사하는 책하여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완전한 은총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10:31. 하늘과 궁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어서 19:1. 고난도11:41. 믿음도11:41.4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막다른 이유로 사랑스런도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가치 없이 심판대에 오른다. 인간은 중심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성경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아담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12:43. 중심을 바로 잡자. 인간은 중심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연오식 기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신유진, 안은미 부부 (신문가정부)



하나님 그 분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부쩍 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진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세상의 부부는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 맺어지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매력을 잃게 되면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세인들이 말하는 '세 쌍 중 하나가 이혼'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했다는 간단한 전리가 기독교 가정과 세상의 가정을 구분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정은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록 인간적인 매력에 없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없애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7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교제의 모습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정'과 '예수가 주되신 가정'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일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마관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주위 사람을 탓하거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게 되지만, 주님의 가정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가정이 세상의 흠여지는 가정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신문가정부의 결혼 준비 교실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저런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
신문가정부

주님만올(막 8:27-38)

김영희 (신문가정부)

결혼하기 전 청년부에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는데 청년부를 그만두고 영적으로 많이 둔해져 자비안육 회사업무에 관련된 남편 자격증 문제 등 세상적인 기도제목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막 8:33)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 그 동안 예수님에 대해 잊어버렸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을 보며, 나도 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적인 기도제목들이 나올 테니까요.

감사한 것은 남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 참 감사해'라고 고백하며 모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할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가정이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03 전반기 장학생 명단

전액 장학금(4명)

1기(98): 김범진 권영일 3기(00): 이희주 4기(01): 이복순

대학원생(19명)

김민철 김성은 김수정 김창배 김형진 김혜진 남송은 박용식 백경희 백선옥 백은경 신미애 안영희 이숙향 이종원 이영희 정미현 최원주 추진희

대학생(68명)

장보은 강성연 강하나 강현지 박현우 권성재 권요셉 김도현 김동성 김묘성 김진정 김수연 김수현 김예라 김영민 김윤정 김인애 김진희 김지희 김한비 김한바오 김해진 노미소 문화원 민수정 박영진 박윤정 박은진 박하얀 배성준 변강식 송민규 안윤정 오민진 윤석인 유병규 유원주 유종민 윤은진 이덕용 이상훈 이신화 이소미 이우주 이유미 이재욱 이정민 이정현 이준수 이하나 이혜진 임진희 장정은 전용일 정국용 정하나 조소희 최민우 최성진 최윤정 최희송 최희주 최희은 한정우 함송기 허수현 하세나

고등학교생(65명)

강미경 강재구 고혜진 권덕용 김근태 김진영 김성주 김소영 김신영 김아름 김영재 김예진 김용덕 김윤정 김재현 김희진 김희철 문선진 문영민 박 형 박경준 박성준 박은지 박은지 박지영 박현민 박지은 손은혜 신장아 신재성 양하은 엄혜실 오상덕 유미나 윤태민 이다정 이덕진 이동훈 이민정 이영훈 이경덕 이주영 이지윤 이지훈 이지훈 이진구 이혜원 이훈희 전선진 전해영 정구환 정창배 조상미 조요셉 조종현 지형훈 지효정 최 웅 최지인 한은진 한태빈 허다영 현승기 홍경화 황지현

중학생(2명)

강 진 김지혜

이상 158명

장학금 수여식(대학생·대학원생)

2003년 2월 15일(토) 15시 30분 베다니홀

믿음의 가정

김대식, 구해진 부부 (신문가정부)



지난 신문가정부 겨울 수련회는 제훈이가 태어나고 간 첫 수련회였다.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4개월이었던 어린 제훈이를 기도원에 데려가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제훈이를 무사히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며 지하 강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훈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큰소리로 울 때는 안아주어야 하고 컸을 먹여야 했다. 나는 예배실의 뒷자리에 설교를 들어야 했기에 깊이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럴 것이라 생각 못했던 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이루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훈이를 임신했을 때 수련회에 왔던 기억이 났고 이내 따뜻함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 그 때, 태어난 아기와 함께 수련회에 올 상상을 하며 얼마

나 행복해 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제훈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라 보니 속상한 마음은 간 데 없고, 주위를 둘러보면 제훈이의 맑은 눈동자가 감사의 제복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주변에서 능숙하게 아기를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복이었다. 가끔 붙어오는 상쾌한 바람마저도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부모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교회 솔리스트 찬양대원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리스트 찬양대원들을 찾아가 찬양으로 만 들던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특별히 즐겨 부르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아주 많습디만, 특히 찬송가 404장, 410장은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410장의 가사 그대로,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가 제게 축합니다. 저는 어려서 브라질에 이민 가서 여러 차례 오지 선교를 다니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알 수 있었고, 오�히 이들을 사랑하시듯 저도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의 감동을 생각하여 404장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음' 살아도 한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2. 일상생활 중 어느 때에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쁨 때든 고심 중에 있을 때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저는 새벽 말씀묵상 시간과 하나님과 비밀스런 교제를 나눌 때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또, 마음을 깨달을 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그 기쁨을 찬양합니다.

3. 찬양대원으로서 '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찬양은 은혜받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음악에 대한 막대한 감정으로써 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 그 마음을 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4. 찬양에 대한 기도제목주 말씀해 주세요.

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 찬양하는 솔리스트의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찬양하는 자기 기쁨이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능과 노력 그 어느 쪽으로도 지나치게 주위에게 뽐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이끌리어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찬양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영혼을 살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제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김소진 집사
합창팀이 찬양대 솔리스트

(예혜원 기자)

다음 주일 찬송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 찬송가는 웨슬레 하스(C. W. Hicks)가 작곡한 곡을 1951년 알프레드 스미스(A. B. Smith)가 이 찬송가의 곡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곡하였는데, 휴스턴 그린(C. H. Greene)이 1951년에 작사하여 같은 해 미국의 싱스피레이션(Singspiration)출판사가 판권 등록했다는 것외에는 이 찬송의 작사와 동기가 배경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이 찬송 가사에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근거로 하는 영적인 기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기원된다.

1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계신다 그 피가 내 죄 없었으니 나 주 안에 계신다

2절 주 내 집 내심 지냈으니 나 주 안에 계신다 그 생령 버려 나를 구했어 나 주 안에 계신다

3절 주 온 세상 내게 드러내 나 주 안에 계신다 저 악한 죄 같에서 자라나 나 주 안에 계신다

후렴 나 주 안에 계신다 나 주 안에 계신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계신다

템포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담금질(싱크페이션)에 유의하며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만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원형)

새·가·족·을·원·하·나·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0	한영선	1	고동부	한다영(19)	137	김호준	11	장난부	정인호(11)	145	정영선	19	대학부	이창호(16)
130	황영희	4	장난부	138	김호준	11	대학부	정인호(11)	146	김선영	19	대학부	고혜영(19)	
131	이승현	9	장난부	전현술(9)	139	김호준	11	고동부	정인호(11)	147	박혜선	19	대학부	민수경(19)
132	김원하	4	장난부	140	김호준	11	대학부	정인호(11)	148	고난경	19	대학부	김승곤(9)	
133	민서영	19	대학부	조희원(2)	141	이호진	19	장난부	149	김수민	19	대학부	최현희(17)	
134	오영희	9	장난부	남현호(9)	142	노숙희	19	대학부	전용훈(19)	150	조현경	19	대학부	김용준(1)
135	정경희	10	장난부	신정현(10)	143	조혜진	19	장난부	차재홍(6)					
136	정인호	11	장난부	정인호(11)	144	황수진	19	대학부	전용훈(19)					

* 순경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제록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양호실

3교구 박춘자 집사(여46세)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김숙진 성도(여43세) 면역성결핵 폐결핵으로 입원 중입니다. 치유가 까다로운 병이라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음에 성장하도록,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정재봉 집사(남78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편묵상

시편 128편

복이란 단어는 시편 128편에 나타난 대로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128편은 이 행복한 상태, 복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 128:1).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복된 계시를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되며, 생애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계 1:3, 22:7). 복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접하면, 복이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어떤 삶의 운수대통이나 재수 좋은 또는 이것들의 빈번한 등극하는 것이라 말하는 수 없습니다.

복된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엄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협한 지성의 규격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정한 범위 안에 그분을 한정하기를 고집하는지, 우리 마음에 편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는지.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상을 영리 자원으로 사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이처럼 만만히 대하는 불신앙을 경계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즉,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해하며 때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노선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순종하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고 고만 자체로 일관하고, 우리 육체는 본능과 기호에까지 스며든 죄로 타락의 온상이 되었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 순종해볼 수 없려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순종해볼 수 없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행복한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오래된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히 12:2).

우리는 시편 128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신 주권자로서 영원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약속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혜원 기자)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문호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술하여 1남1녀를 두었고,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꽃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는 평소에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자들에게서 더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만은 교회로 인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청년부 집사님이 전도하여 출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본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등록하고 새가족부 집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참 좋았으며 특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말씀과 실제 생활과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즉 말씀을 실제 영적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알고 싶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잊지 못 할 심방

고 승균 (안수집사, 소년부 부장)

새해가 시작되던 84년도 2월 경의 한 사건이 내 기억 속에 되살아난다.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임시간, 목사님과 부장님이 '학생심방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유난히도 많이 강조하셨다. 신입교사들은 대체로 걱정하고, 신입교사들은 신입교사들에게 심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교사 초년이었던 나는 기록카드를 점검하다가 심방이 힘든 세 장의 기록카드를 빼 내었다. 그 기록카드 중 하나는 이름만 적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다. 이런 자료로 어떻게 심방을 할단 말인가? 나는 당연히 심방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 세 개의 기록카드를 빼 내어 제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를 부르셨다. 이유인 즉은 먼저 심방을 해 보고 제적 신청서를 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심방합니까? 제적해 주십시오.'하고 반문하였고, 목사님은 막무가내로 "그래도 일단 심방을 한 후에 제적신청을 하세요."하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제적 신청서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와 무표정한 얼굴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불만이 가득하여 중얼거렸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오기가 생긴 것이다.'

먼저, 전화변화가 있는 어린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국번 이거나..."하는 음성이 나왔다.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주소가 있는 어린이집만 방문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렸다. 토요일 12시가 되자, 직장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그 주소의 집을 찾아가다. 그런데 그 동네 집들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내가 찾아간 집도 부서져 있었다. 알고 보니 그 동네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 중이었다. 나는 발길을 돌려 동사무소로 가서 이사간 집을 찾아내

었다. 그런데 그 이사간 집에서도 또 이사를 갔다. 이렇게 이사간 집을 찾아가기를 네 번이나 반복했는데 다행히 송과, 잠실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먼길을 헛고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날이 어두워졌다. 날 썩고 많이 추워 귀와 발이 시려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골목골목 돌며 한집씩 확인하며 찾는데 아이를 떠드는 소리가 나서 번지수를 확인해 봤더니 내가 찾던 집이었다. 나는 반가워 눈물까지 흘렸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겠노?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마 18:12).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다. '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는 줄 아니? 나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밤낮없이 잠지도 쉬지 않고 너를 찾는단다.' 아,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나빴어요. 저는 그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어요. 소중한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군요. 주님이 이렇게 저를 찾고, 불들이 주시는군요. 감격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식구들은 이제 막 수제비인지, 칼국수인지를 물어 먹으려는 중이었고, 두 명의 어린이는 장난을 치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는 어색하게 앉았다. 나는 교회 선생님을임을 밝히고 바로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예배를 마치고 예수 믿고 자녀들도 교회 보낼 것을 말씀 드리니, 생활이 어려워 차를 태워 충현교회까지 보내기는 힘들니까 가까운 교회를 보내겠다고 했다. 심방을 마치고 돌아오며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다. 나는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크게 외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 사항

1. 서리집사 추가 임명

- 1) 권영훈 / 남, 1955. 02. 18 / 85-582 / 14교구
- 2) 한천길 / 남, 1946. 10. 03 / 79-520 / 14교구
- 3) 박정윤 / 여, 1958. 04. 16 / 85-582 / 14교구
- 4) 이경숙 / 여, 1952. 08. 22 / 79-520 / 14교구
- 5) 임정희 / 여, 1947. 08. 16 / 92-951 / 14교구
- 6) 공도순 / 여, 1940. 03. 20 / 98-1191 / 7교구

2. 예배위원회 봉사자

- 1) 예배부
 - 3부 예배 1층 차장 / 면 임기정 / 명 노태경
 - 5부 예배 차장 / 명 노태경 / 명 황인주
- 2) 성례부
 - 6조 / 명 양명숙
- 3) 인내부
 - 1부 예배 조원 / 명 윤윤식, 박영기
 - 4부 예배 조원 / 명 김경희, 김순재
 - 5부 예배 조원 / 명 이이희
- 4) 헌당부
 - 2부 예배 조원(1층) / 면 이병영, 김경숙, 조종덕, 강영기, 임종애
명 최희배, 강영국, 박희진, 김경숙, 이은교, 김영숙
 - 2부 예배 조원(2층) / 명 변은숙, 강기복
 - 3부 예배 조원(1층) / 명 박민숙 / 명 이명숙
 - 3부 예배 조원 / 면 윤병순, 이일호 / 명 고미숙, 김경순, 김진보, 이윤정, 김연화, 민행남
 - 3부 예배 조원(2층) / 면 김경화 / 명 김한숙
 - 4부 예배 조원(1층) / 면 조인식, 김현순, 오순자, 하두연, 한현숙, 최광현, 박신자
명 김희자, 박경자, 김동하
 - 4부 예배 조원(2층) / 면 김순옥 / 명 한복, 안정선
 - 5부 예배 조원(1층) / 면 최 웅, 이주영, 김솔미나, 박주영, 박현웅, 이보미, 염혜설, 김산영, 김지희, 김재현, 지호은
명 이은희, 이혜린, 김재현, 박현민, 홍다은, 김산영, 김소영, 이도훈, 현은옥
 - 5부 예배 조원(2층) / 면 노태경 / 명 황인주

개구쟁이 우리반

이 미 화 (집사, 초등부 교사)



나는 작년에 유년부 교사를 했다. 귀엽고 예쁘면서도 개구쟁이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줘야 하나? 그 어린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아들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도 했고,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있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 반 친구들은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장난을 치곤했다. 그순간 나는 화도 났고 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적인 야단을 치고 싶었던만큼 성령님께선 그 문제를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우리반 친구들이 기도를 하지않고 떠들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리내어 기도를 했더니 떠들던 녀석들이 잠깐들라며 의아해 했다. 그래서 나는 "애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까지 찾아서 읽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크게 읽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정성껏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했지만 선생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기도를 했단다"라고 말해주었더니 아이들은 심각한 모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 반 여자 친구 하나가 "선생님! 우리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글귀의 액자가 벽에 걸려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고, 남자 친구 하나는 "범사가 무엇이야? 그 진지하게 질문을 했. 그래서 나는 "범사란 기쁨, 슬픔, 괴로움, 아픔, 모든 일을 말한단다"라고 했더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친구들 마음 속에서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올해는 초등부의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주는 지혜있는 교사가 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부족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 땀

- 모임

- 별 세

- 한글

- | | | | | | | | | | |
|-------|-------|-------|-------|-------|---------------------|-------|-------------------------|-------|-------|
| 김진철 | 김은호 | 노광현 | 오진국 | 이병학 | 이종대 | 정현민 | 김동호 | 서광진 | 박인기 |
| 12.29 | 12.29 | 유호석 | 유호석 | 유호석 | 유호석 | 유호석 | 유호석 | 유호석 | 유호석 |
| 최대원 | 임필성 | 강모용 | 오진현 | 이 훈 | 이성기 | 류병희 | 이종철 | 김영훈 | 여국근 |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 남상우 | 정운서 | 김영길 | 문용주 | 조진재 | 김교성 | 이수근 | 이재진 | 안정덕 | 방준열 |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 김광주 | 최무진 | 김재현 | 이창호 | 차신득 | 나광임 | 정진호 | 김종우 | 이성호 | 고광환 |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 김광남 | 이종식 | 이병옥 | 안종욱 | 임무현 | 김광근 | 위진광 | 김익찬 | 김정주 | 장 훈 |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 이종집 | 최기홍 | 이갑재 | 전홍용 | 전홍렬 | 임현덕 | 이희식 | 최종철 | 하종철 | 신우 |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 이경우 | 김단호 | 황영일 | 한승균 | 김영수 | ■ 전임감독 강인구 | | ■ 전임지휘자 서문성 | | |
| 12.29 | 12.29 | 12.29 | 12.29 | 12.29 | ■ 전임감독차자 김소연 | | ■ 애드도스 | | |
| 정종식 | 김기재 | 원운철 | 이형수 | 안동현 | 정연희 신동자 윤운식 한영준 김연식 | | 12.29 12.29 12.29 12.29 | | |
| 황의만 | 김우형 | 최윤덕 | 이계인 | 박덕양 | 홍순애 이욱주 김민재 안태준 김경연 | | 12.29 12.29 12.29 12.29 | | |
| 이태식 | 정두배 | 박홍규 | 권명옥 | 조종환 | 조옥주 강덕필 김덕진 장재구 최문실 | | 12.29 12.29 12.29 12.29 | | |
| 배준식 | 김영달 | 이성호 | 박찬식 | 최지윤 | 전은희 김영순 김재성 이수경 | | 12.29 12.29 12.29 12.29 | | |
| 노영환 | 박철규 | 정정길 | 신상수 | 강철형 | ■ 단기교사 강기업 | | 12.29 12.29 12.29 12.29 | | |
| 고재술 | 김영은 | 유영준 | 유영준 | 유영준 | ■ 협력선교사 하효섭 | | 12.29 12.29 12.29 12.29 | | |